

# KMI 동향분석

**VOL.169**  
2020 MAY

발간년월 2020년 5월(통권 제169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수 주문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코로나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조국훈 관측기획모형팀장  
(ghcho@kmi.re.kr/051-797-4519)

한보현 관측기획모형팀 연구원  
(kmibh@kmi.re.kr/051-797-4924)

이남수 수산업관측센터장  
(nslee1203@kmi.re.kr/051-797-4507)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수산양식 분야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천해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10% 정도 감소했으며, 내수면양식수산물도 비슷한 규모의 생산량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횡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광어, 우럭, 전복, 송어 등의 소비감소가 두드러졌다. 우럭은 작년 동기간 대비 14%, 송어는 27% 감소했다. 광어는 작년보다 6%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0%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횡감용 활어류의 수요 감소에 따라 산지가격도 작년 동기간 대비 8~15%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정부 및 업계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으로 피해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할인판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대형마트 상생할인’, ‘공공기관 상생구매’, ‘드라이브 스루 할 수산물 특판장 운영’ 등 전방위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였다.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둔화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활성화 시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어, 전복 등 주요 양식수산물의 양성물량은 평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대표적 양식 어류인 광어의 경우 4월 말 기준 1kg 이상 출하 가능한 양성물량이 평년에 비해 28% 많은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복도 8%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활어 상태로 주로 소비되는 명게를 비롯해, 외식 소비가 많은 송어, 메기, 향어 등의 품목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양성물량 적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른 부분적 일상 복귀와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로 인해 양식수산물 수요는 지난 2~4월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체 물량이 많은 주요 양식수산물의 경우 수요 증가가 미미하며, 그에 비해 어가의 입식자금 및 공간 확보를 위한 출하가 예상되므로 산지가격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횡감용 주요 양식수산물의 입식 및 양성물량과 산지가격과의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산지가격 하락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광어의 경우 최근 몇 년간의 수요 감소에 따라 입식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출하가능 양성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4월말부터 수요증가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전복은 올해 4월말 기준 양성물량이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식량이 작년 동기과 비슷해 향후 국내 소비 및 수출 증대 요인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과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양식수산물의 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봄철 행락 수요에 의한 수산물 소비 증가는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나, 수산물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회복세로 속단 할 수는 없다. 특히 양식 어가에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소비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 향후 입식 시기에 과도한 입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활수산물의 수요 감소라는 양식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소비촉진 노력도 필요하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양식산업에 있어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물량 관리에 의한 ‘계획 생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입식량 결정은 어가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강제적 개입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양식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정부·관계기관·업계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 가칭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산종자부터 양성, 유통, 가공, 소비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식수산물 수급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양식산업에 있어 체계화된 제도 및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해야 할 업계의 동참이 없다면 단순한 ‘외침’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향후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적정 입식량 및 생산량을 제시할 경우 양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외부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의 시련과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양식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주요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대체로 불투명

### ■ ‘코로나19’ 이후 천해양식수산물 생산량 작년 대비 10% 감소, 내수면양식수산물도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정도의 차이일 순 있으나, 수산부문도 예외일 순 없으며, 특히 수산양식 분야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졌음
- 우선 천해양식수산물의 경우 올해 4월까지 누계 생산량은 123만 4,110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서 10% 정도 적은 수준임
- 또한 내수면양식수산물의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뱀장어는 작년 동기기간 대비 6.1% 감소했으며, 송어는 그 보다 많은 29.1% 감소하였음

표 1. 천해양식수산물 생산량 동향

구 분	평년		2019년		2020년		평년 대비		작년 대비	
	4월	누계	4월	누계	4월	누계	4월	누계	4월	누계
천해양식 계	254,972	1,201,087	271,965	1,371,110	276,264	1,234,110	8.4	2.7	1.6	-10.0

주 : 1) 주요 품목(김, 미역, 전복, 굴, 넙치, 우럭)의 4월 생산량은 통계청 작년 동월 데이터에 수산 관측 통계의 작년 대비 증감을 반영, 기타품목은 어업생산 통계(최근3년 동월 평균)를 적용 하여 생산량 산출  
2)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 ■ 양식수산물, 횡감용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 큰 것으로 나타나

- 양식수산물 중 주로 횡감용으로 소비되는 광어, 우럭, 전복, 송어 등의 출하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대체로 감소했음
- 우선 우럭과 송어는 2020년 4월까지 작년 및 평년 동기기간 대비 작가는 14%에서 많게는 29%까지 출하가 감소했음. 반면 광어의 경우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음
- 즉 광어는 작년 동기기간 대비 약 6%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광어 소비가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평년에 비해서는 11%가량 적은 수준임
- 전복은 작년 동기기간 대비 4%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8.8% 증가했음.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1월에 출하량이 예년에 비해 많았으며, 또한 출하 가능한 양성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전복 먹이 부족 등으로 출하를 앞당긴 어가들도 많았기 때문임. 그러나 전복의 경우도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3월까지 출하량은 작년 동기기간보다 2% 정도 적었음

표 2. 주요 양식수산물 출하 동향

(단위: 톤, %)

구 분	평년		2019년		2020년				평년 대비		작년 대비	
	4월	누계	4월	누계	2월	3월	4월	누계	4월	누계	4월	누계
광어	3,279	12,995	2,908	11,011	2,404	2,815	3,107	11,635	-5.3	-10.5	6.8	5.7
우럭	1,658	6,849	1,701	6,249	1,370	1,126	1,405	5,408	-15.3	-21.0	-17.4	-13.5
전복	1,168	4,178	1,322	5,180	1,197	1,113	1,597	5,382	36.7	28.8	20.8	3.9
송어	238	1,046	247	1,010	122	77	193	741	-18.9	-29.1	-21.9	-26.6

주 :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소비 감소에 따라 횡감용 양식수산물 수요는 줄었으며, 산지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였음
- 특히 횡감용 주요 양식수산물인 광어, 우럭, 전복, 송어의 2020년 4월까지의 평균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는 8~15%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8~25% 하락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

표 3. 주요 양식수산물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 분	평년		2019년		2020년				평년 대비		작년 대비	
	4월	평균	4월	평균	2월	3월	4월	평균	4월	평균	4월	평균
광어	11,869	11,213	9,958	9,179	8,376	7,729	8,766	8,420	-26.1	-24.9	-12.0	-8.3
우럭	8,235	8,727	6,625	7,794	7,125	6,475	7,080	7,015	-14.0	-19.6	6.9	-10.0
전복	37,323	40,899	34,800	36,817	34,867	33,000	30,867	34,046	-17.3	-16.8	-11.3	-7.5
송어	8,266	8,616	8,893	9,282	8,168	7,557	7,567	7,925	-8.5	-8.0	-14.9	-14.6

주 : 1)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이며, 해당 연도별 평균은 1~4월 평균 산지가격의 단순평균임

2) 광어는 제주지역 1kg기준 가격, 우럭은 통영지역 500g 기준 가격, 전복은 kg당 10미 기준 가격, 송어는 전국 평균 가격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코로나19’ 영향 극복 위한 정부 및 업계의 다양한 노력 이어져

### ■ 해양수산부,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 시행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였음
-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30억 원,

수산분야 수출 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1,324억 원 등 총 1,354억 원 규모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기존 대출자금을 1%의 저리 자금으로 전환)을 각각 지원하였음
- 수산분야 정책자금 3조 4,8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2조 8,000억 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어업인과 수산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기로 함
-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공중파·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접광고(PPL)를 지원하고, 영세 어업인이 공영홈쇼핑에 입점하는 비용 및 전자상거래 진출 관련 컨설팅도 지원함
-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협업을 통해 이달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어식백세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함
-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6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와 10개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수산기업과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함
- 또한 소비자가 지역 위판장에 있는 수산물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3개 소의 '위판장 캠퍼마켓'도 조기에 구축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촉진시키기로 함

그림 1.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 홍보물



#힘내라..대구경북  
#힘내라..대한민국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 수산업계 종합지원대책



수산식품 수출  
역량제고



수산물 소비 및  
거래 활성화



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수산분야  
경제 활력 유지



자료 : 해양수산부 블로그



## ■ 해수부, 온라인 쇼핑몰 할인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속 시행

- 해수부는 수산분야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산물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해수부 후원으로 옥션, 11번가,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한국수산회가 주최하여 전복과 멍게를 1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총 9억 9,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였음
- 또한 3월에는 온라인 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우리어민 돕기 온라인 상생할인 행사'를 통해 11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추가로 달성함
-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온라인 할인 판매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3월 30일부터 2주간 해수부 주관으로 공영쇼핑, 다나와, 롯데커머스, 롯데홈쇼핑, 11번가, 인터파크, 정관장물, 쿠팡 주최로 전복과 멍게를 비롯해 주꾸미, 해삼, 생새우, 꼬막 등 100여 품목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음
- 또한 4월에는 '온라인 상생할인전', 5월에는 대형마트, 수협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쇼핑 업체 등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2. 온라인 소비촉진행사 홍보 포스터

자료 : 해양수산부 블로그

## ■ 지자체,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호응 얻어 전국으로 확산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를 통한 활수산물 판매활동임
-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포항시에서 실시했음. 대상품목은 강도다리로 활어회 형태로 판매하였음
- 포항시가 진행한 행사에서는 준비한 횡감 500kg이 3시간 30분 만에 품절될 정도로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경북, 전남,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음
-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한 수산물 판매가 호응을 얻으면서 농산물과 축산물도 동일한 방식을 통한 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3. 지자체별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 포스터



자료 : 각 지자체 홈페이지

## 다양한 소비촉진 노력에도 양성물량 적체 많아 수급안정화 불투명

### ■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불구하고, 주요 양식수산물 양성물량 적체 많아

- 정부의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둔화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활성화

시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어, 전복 등 주요 양식수산물의 출하가능 양성물량은 평년에 비해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우선 '국민 횡감'으로 불리며, 국내 어류 양식의 대표 품목인 광어의 경우 4월말 기준 1kg 이상 출하가능한 양성물량<sup>1)</sup>이 954만 마리로 작년보다 10%, 평년에 비해서도 28% 많은 수준임
- 또한 최근 몇 년간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복의 경우 1년 이상 양성물량이 7억 6,583만 마리로 작년에 비해서는 2% 많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8% 정도 많은 수준임
- 내수면 양식품목 중 활어 위주의 외식 소비가 대부분인 송어의 경우 800g 이상 크기의 출하가능 양성물량 증가폭이 컸는데, 작년 및 평년 동월 대비 각각 32%, 23% 많은 641만 마리였음
- 이 외에도 활수산물로 주로 소비되는 멧게를 비롯해, 외식 소비 품목인 메기, 향어 등의 품목도 소비부진에 따른 양성물량 적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주요 양식수산물 출하가능 양성물량 동향

(단위: 만 마리, %)

구 분	평년 4월	2019년 4월	2020년 4월	평년 대비	작년 대비
광어(1kg 이상)	746	867	954	27.9	10.0
전복(1년산 이상)	71,116	75,138	76,583	7.7	1.9

주 :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임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수산물 소비증가 예상되나, 양식수산물 수급 불안정은 여전

- 아직 '코로나19' 종식을 예단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5월 들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소 완화된 형태인 '생활 속 거리두기<sup>2)</sup>'로 전환하였음
- 또한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외식 소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양식수산물 수요는 지난 2~4월에 비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소비 부진으로 인한 적체 물량이 많은 주요 양식수산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어가 경영 유지 및 입식자금공간 확보를 위한 홍수 출하가 예상되어 산지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1) 광어 출하량의 약 60%를 1kg 이상 크기가 차지하므로 1k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을 출하가능한 양성물량으로 설정함

2)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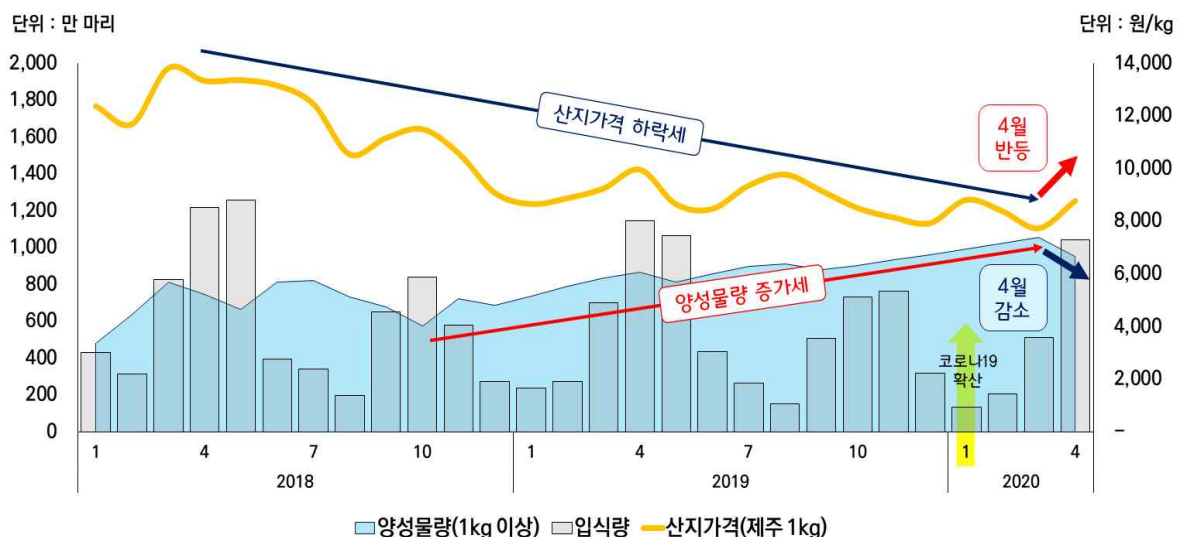


## 횡감용 양식수산물, 양성물량 많아 가격 회복은 당분간 불투명

### ■ 광어, 최근 산지가격 상승하였으나, 상승세 지속여부는 의문

- 광어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발생으로 양성물량이 적체되고, 적체물량 증가에 따른 과도한 출하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의 악순환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겪고 있음
- 특히 2018년 7월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이후 출하가능 양성물량의 지속적인 적체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그 심각성이 가중되었음
- 광어 산지가격<sup>3)</sup>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그림 4. 광어 입식량, 양성물량 및 산지가격 동향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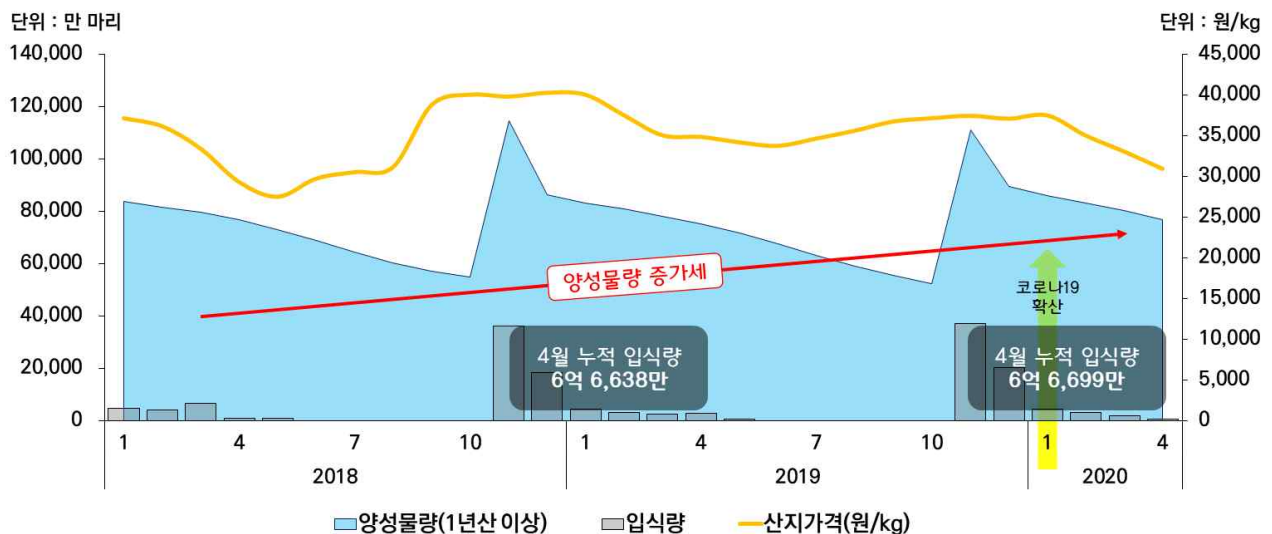
- 다만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비촉진 행사로 4월에는 산지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과거 추세를 고려할 때 출하 규격인 1kg 크기의 양성물량이 많아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광어 수요 감소와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2018년 이후 입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뚜렷한 산지가격 반등의 신호는 보이지 않음

3) 광어 산지가격은 출하 비중이 높은 제주산 활광어 1kg 가격임

## ■ 전복, 양성물량 증가에도 입식량 유지되고 있어 산지가격 회복은 불투명

- 최근 몇 년간 전복 양식업은 시설량과 입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는 그에 미치지 못해 양성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지가격은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4월 기준 양성물량은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입식된 누적 치패 입식량은 작년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임. 즉 소비 부진으로 양성물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입식량은 유지되었음
- 앞서 살펴 본 광어와 마찬가지로 전복도 전방위적 소비촉진 행사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출하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밀어내기식 홍수 출하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임

그림 5. 전복 입식량, 양성물량 및 산지가격 동향



자료 : KMI 수산업관측센터

##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 '입식 조절'이 필수

### ■ 현재의 양식수산물 소비 증가, 장기적 회복세로 볼 수 없어 향후 입식 조절이 필수

- 양식수산물의 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어 향후 일시적으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주도의 소비촉진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식수산물 소비 증가는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회복세로 볼 수 없음. 특히 양식업계는 일시적 수요 증가를 소비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 향후 입식 시기에 과도한 양을 입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현재의 양식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종합적인 수급 대책 마련 필요

- 식품안전성 문제를 비롯, '코로나19'와 같은 수산물 소비감소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위협요인이 존재하며, 활수산물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어 국내 양식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할 때임
- 그러나 입식 과다와 적체물량 증가로 인한 홍수출하와 가격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식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수급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적인 생산이 요구됨. 즉, 철저한 양성물량 관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입식 관리를 통해 가능함. 그러나 입식량 결정은 어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으로, 강제성을 가진 어떠한 개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특히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을 위해 장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양식수산물의 수급관리를 위한 정부·관계기관·업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요구됨. 어획수산물의 경우 비축물량 등을 결정하는 '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이를 양식산업에 도입하여 '(가칭)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장기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함
- 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에는 종자부터 양성, 유통, 가공, 최종소비단계까지 주요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정부의 지원책과 더불어 업계의 자발적 '입식 관리' 동참이 필수

- 양식수산물의 수급관리에 있어 '입식 관리'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임. 그러나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입식은 양식업 종사자 개개인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일 수는 없음
- 앞서 제안한 (가칭)양식수산물 수급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본 위원회를 통한 적정 입식량에 대한 결정에 있어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어가의 자발적인 동참이 없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음
- 따라서 양식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과 더불어 업계의 자발적 입식관리가 필수적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외부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양식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